

# “노후 건물 저탄소 리모델링... 전기차 5분 충전망 구축”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도시기반시설 강화 투자 확대  
‘제로 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2050 탄소중립 철저히 이행”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2026년까지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 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1000㎡ 이상 건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시는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작년 4.2%에서 2030년 21%까지 끌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일 오전 시청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어울린다는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금년 반포지역 재건축에 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 물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 공공건물 냉·난방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고,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도 20%가 전기차로 교체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의 체질도

바꾼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엔 녹지가 들어선다. 시는 건물옥상을 포함 도심 곳곳에 월드컵공원의 13배 면적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정비할 예정이다. 물 순환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소하천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바꾸는 ‘지천 르네상스’를 정릉천 등 6곳에서 시작해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차로 다이어트도 이어진다. 시는 2030년까지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28.5km)의 차로를 줄여 보행로를 확대하고, 천호·한강·마포·공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2026년까지 자전거도로(181km)를 만들기로 했다.

기후재해에 대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시는 가뭄·홍수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 넓은 정수센터 4곳(180만/일)을 새로 단장한다. 불량 하수관로 정비물량도 연간 230km에서 2026년 312km로 늘린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상설조직인 ‘24시간 긴급상황센터’는 2024년까지 설치한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존 29만건에서 연 34만건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2026년까지 카페 내 1회용품 사용을 퇴출하고, 일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충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D·N·A 등 4개 분야 신설... 수준별 교육 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교육부 매치업사업 기본계획

신설 분야 3억2000만원 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힘쓸 것”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참여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는 ‘매치업’ 사업에 올해 4개 분야가 추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지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2018년 시범 출발한 이후 2021년 학습자가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2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운영하며, 학습자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 이수결과에 따라 취업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는 ▲D.N.A.(데이터·네트워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인공지능) ▲5G(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BIG3(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등) 4개 분야를 신규 선정, 분야당 교육과정·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부터 기초·심화의 수준별 과정을 도입한다. 기초과정은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와 연동해 제공하

고, 심화과정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PBL)교육, 기업 재직자(멘토)와 학습자(멘티) 간 연계 등을 위해 지속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 또는 대표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오는 3월31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정병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올해 매치업 사업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수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일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 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특성 분석

인하대학교는 20일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연구협력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작년 9월 환경부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수도권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 수행 기관으로 인하대를 선정했다.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으로 인하대는 환경부로부터 연간 4억6000만원, 인천광역시로부터 연간 2억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올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도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 검증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 출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통합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내놨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결제앱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달 24~26일 발행하며, 시민들은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과 회원 관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결제 방법도 다양화된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는데 3월

부터는 터치결제, 웨이크&슬라이드결제(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만 엮어 결제)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포함한 생활정보 안내 기능이 탑재된다.

서울페이+ 출시 기념 이벤트도 마련됐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페이+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명을 추첨해 GS25 상품권(5000원권)을 증정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6개월 내 행정처분”

전문가 구성 ‘신속처분 TF’ 투입

서울시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은 처분까지 평균 반년 정도 걸리는 반면 중대재해사고는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20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등 외부 기관 으로부터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한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분 TF’를 투입해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 (이하 처분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분심의회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꾸러지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